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천대중총무원장상)

향광행(서울시 수유3동)

수령인지 운명인지 어쩔 수 없이 세 자매 어린 아이들을 기르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했습니다. 나라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을 빌어 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세 자매의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세 자매의 엄마는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데다 홀로 세 자매를 기르는 것에 힘겨워 하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예쁘고 천진한 세 자매 부처님을 두고요. 10살 윤영, 8세 서임, 6세 지호를 두고서 울면서 울면서 그 아이 엄마는 그렇게 떠나고 말았답니다.

두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 엄마는 19세였고 아빠는 근인인 21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엇이 그다지 바빠서 결혼식이란 격식도 없이 세 자매를 생산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살아 보려고 애를 쓰다 그만 시대를 잘못 만나서 헤어져야만 했답니다.

처음엔 그 세 자매의 엄마 아빠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야만 날고 살면 막대 없이 곧잘 살 줄 알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다. 다 이 할미의 입이라 생각했지만 처음엔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한없이 미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한 중생인이라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 불쌍한 세 자매 부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자매는 신발도 다 떨어져 엉망이었으며 옷은 더러워서 길거리 걸인 같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단칸방 생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바퀴벌레는 득실거리는데, 아이들 온몸을 물어뜯어서 흉이 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피부 또한 성한 곳이 없어서 아이들은 가려워 긁다가 몸을 피부성 이로 만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밝고 부유한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림 문명성

가난 때문에 가정 파탄, 3자매만 남아 지하방서 벌레 물리며 굶주린 생활 '부처님,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아무 곳이나 버려졌습니다. 과자 부스러기와 라면 먹고 찢지 않은 그 때문엔 바퀴벌레 천국이 되었지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의논도 없이 세 자매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나 시집간 딸자식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제 몸도 성치 못하고 칠순의 남편마저 뇌졸중으로 3년째 방안에 누워 계시는데, 그 아이들마저 어떻게 기르겠나며 미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시설도 좋으니 그곳으로 보내자고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귀엽고 예쁘고 눈이 까막 까막한 살붙이를 부모가 버렸다 해서 이 할미마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김치 한 조각 놓고 밥을 먹다가도 부둥켜 안고 울며 뜨거운 눈물을 얼굴에 떨어뜨리면서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웃가지는 남에게 얻어다 입고 신발도 깨끗이 빨아서 신고고 물을 데워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학교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만 보고 거짓말도 곧잘 했습니다. 고백 풀어진 망아지마냥 길들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흉이 심하니 아이들이 놀린다면 학교 가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거짓말도 손가락질 한다면 학교에도 안 가곤 했습니다. 개고기냄새와 이 할미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 이 일을 어찌든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부처님 이 불쌍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다 제 죄니 어린 새끼의 아이들께 가피를 내려주시시오' 하면서 매일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5번씩 읽고 발원했습니다. 한달에 1000번씩 외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이 어린 세 자매가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해주소서, 거짓말 하지 않게 해 주소서, 이 할미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고 참회의기도를 매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상 앞에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처님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이 밥을 먹게 해주셔서 고맙

습니다. 이 밥을 먹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거짓말 한 것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 발원문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 자매 부처님을 보살핀 지가 어린 5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땡땡에 6세 아이가 어느 땀을 사람에게 끌려가 성주형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해 지금은 다행히 별탈없이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할미가 보살피지 않았더라면, 아니 부처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그 어린 가슴에 상처를 입힐 뻔한 일이라 지금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 집니다.

지금은 우리 세 자매 부처님에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밖으로만 뻔뻔한 아이들이 집안에서 차분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미가 서울 강남 포이동에 있는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니는데, 녀석들이 매주 꼭 따라 다닙니다.

매주 목요일 밤이면 강의를 들러서 길을 나서는데 우리 예쁜 세 자매들은 그때마다 제 보디가드가 된답니다. 강의가 늦게 끝나 밤이 늦어서야 집에 오는데도 꼭꼭 따라다닙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발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회계사에 가서 어린이 법회를 합니다. 이 할미는 지금도 매일같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5번씩 독송하고 우리 귀여운 세 자매를 위해 발원합니다. '부처님 우리 귀여운 세 자매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가피를 내려 주십시오' 하며 늘 발원하며 지냅니다. (계속)

킹레이 수행일기 <上>

불교와의 인연은 오래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고 사찰을 다니면서부터 비롯됐다. 그때는 법당에서 제대로 삼배도 못하는 불자였으나 1983년도 어머니님이 타계하신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교서적을 탐구하고 등산을 겸하여 전국유명 사찰을 탐방하고 108배 참회정진 등을 하면서 불교세계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1991년도에 직장을 광화문으로 옮기면서 좀더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계사 근처에 있는 불교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기적인 법회를 통한 경전공부와 철학정진 등으로 불교공부를 계속했다. 수행에 나름대로 열성을 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맺도는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이며, 나도 깨달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불교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구심만 가중되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우곡선원을 알



최명수 서울제신정 정보통신과장

법과는 너무나 상이하였다. 그것은 고답적이고 맹목적으로 여겨지는 종교관행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정립하고, 수행을 통해 이치를 섭렵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짜여져 있었다.

특히 우곡선원의 오계원(五戒願은 '불법을 토대로 예(禮)와 덕(德)을 배양한다. 실상관법(實像觀法)을 통하여

나름대로 수행 했으나 늘 공허함 느껴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우곡선원' 서 정진

게 되어 2000년 12월에 우곡 참선교 육 제3기생으로 인연을 맺었다.

처음 우곡선원을 방문하였을 때 일반 아파트와 같은 평범한 환경과 그 흔한 불상도 두지 않고 지난 해 선원을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불상을 모셨음) 법당의 정면에 팔정도만 게시되어 있어 상(相)에 익숙한 나로서는 좀 의아하게 여겨졌다. 또 옆방에서 여러 거사들과 어울려 차담을 나누는 분위기를 일반 수행자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분이 바로 우곡선원을 이끄시는 우곡 장명화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기 마련이다. 평범한 모습으로 여러 도반들과 어울려 사는 원장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듯이 오랜 수행경력이나 특별한 모습으로 치장되어있지 않았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잘못 왔나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밀쳐야 본진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5주간에 걸친 참선교육을 통하여 내 생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우곡선원에서의 참선강좌 내용은 기존의 불교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

업(고정관념)을 정화한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만상과 조화를 이룬다. 대의심(大疑心) 대본심(大憤心) 대신심(大信心)으로 미혹에서 벗어나는. 하심(下心)하여 시절인연(時節因緣)을 수용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호감이 갔다. 불자들이 흔히 알고있는 '살생하지 마라'는 등의 너무나도 당연한 불교계율을 뛰어넘어 자신이 쌓은 수행력으로 직접 피안의 세계로 거슬러나오는 오묘한 참선강의와 수행한 체험담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곡선원에서는 참선공부의 기본바탕으로 실상관법을 강조한다. 실상관법은 연기하는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觀)하는 것으로, 행 주좌와 여묵동정간에 끊어지지 않은 선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심신수행법이다. 관하는 대상이 태양과 같은 불(火) 기운의 빛(光明) 경우에는 일상관(日想觀) 또는 화관(火觀)이라 부르며, 맑고 영롱한 달방울 같이 물(水) 기운의 빛일 경우에는 수상관(水想觀) 또는 수관(水觀)이라 부르며, 대지와 같이 땅(土) 기운의 빛일 경우에는 이를 지상관(地想觀)이라 부른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연중 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문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불교방송에서 미얀마 불교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찬란한 불탑의 나라 미얀마!!

불교방송이 미얀마 성지순례에 파격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부처님과 사리불, 목련존자의 사리를 모신 수도 양곤을 비롯하여 세계 3대 불교유적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불탑과 사원으로 이루어진

파간과 만달레이를 순례하고, 까바에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정대불사법회도 병행합니다.

이번 순례는 5박 6일 일정으로 3월 4일, 3월 8일 2회에 걸쳐 대한항공 전세기로 출발합니다.



BBS 불교방송 문의전화: (02)705-5301. 3 www.bbsfm.co.kr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일 정 표

Table with columns: Day, Departure/Arrival, Airline, Time, Main Event, and Hotel. It details the itinerary for the Myanmar Buddhist Holy Land Pilgrimage, including flights to Yangon, visits to pagodas, and stays at various hotels.

* 자세한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이나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1,380,000원 (비자비용 25,000원 별도)
● 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3장
● 포함내역: 여행자보험(1억원),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
● 신청마감: 2월 24일까지
● 출발: 3월 4일, 3월 8일 - 2회